

일자리 창출로 농어촌 활력 도모

도 특별사법경찰팀,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적발

전북도,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시범 운영... 재능은행 구축 등 창출 추진

전북도가 농어촌 지역민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사회적·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이하, 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농어촌 일자리는 도심지역과 달리 단기간·계절적 일자리가 많고, 근로여건이 열악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최근 귀농귀촌 증가와 반농반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농어촌 활력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센터는 재능은행 구축(일자리·일거리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사업추진 등 공공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북도 센터와 군산시, 완주군, 임실군, 부안군 등 4개 시군 센터가 운영됐고, 올해에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전주시와 무주군 센터가 추가로 신규 운영된다.

우선, 전북도와 각 센터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결하는 농어촌 일자리·일거리은행 구축과 시·군별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 일자리센터는 14개 시·군 일자리 통신원을 통해 특색 있는 일자리·일거리 발굴과 지역민의 재능과 경력·경험 등을 조사해 농어촌 일자

리·일거리 은행을 구축했다. 현재 조사된 일자리는 기업체와 경영체 1,105개소, 구직자는 2,619명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기업체(마을 경영체)와 재능·역량을 갖춘 지역인재를 연결해 침체된 농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6개 시·군 센터는 도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특화 사업을 진행한다. 완주군 센터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인력지원단' 운영과 사회적 농장을 통한 프로그램 보조강사 일자리를 창출한다.

임실군 센터는 청년의 스마트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사업과 시니어클럽 등 사회단체 공동체 참여 실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군산시 센터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부안군 센터는 귀농귀촌 창업지원, 전주시 센터는 도시농업 활성화, 무주군 센터는 청년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농어촌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농어촌현장경험체결'과 '지역과정 이음',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농어촌현장경험체결'은 지역주민과 귀촌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 성공한 마을 경영체와 농장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향후 지역에서 취·창업에 꿈꿀 수 있는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한국농수산대학 20명, 도내 농촌계열학과 2명이 견학 체험을 했으며, 올해에는 취·창업에 희망하는 지역민에서 귀촌인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자의 다양한 욕구도 반영해 참여하는 마을 경영체와 기관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과정 이음'은 자격증을 소지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활용 기회를 제공해 취·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생생마을대학(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에서 '마을원예치료사' 일자리를 취득한 수요생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강의 프로그램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수료한 지역민이 취·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상 확대와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시설폐소 청년, 지역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향후, 교육·돌봄 및 생활서비스 등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능과 경력을 바탕으로 일거리를 찾는 지역민과 지역인재를 찾는 기업체를 중개함으로써 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익산 금미면 소재 폐업공장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 불법 보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현장을 지난 14일 단속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의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파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적발한 익산의 사업장폐기물 현장.

것이다.

도내에도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익산시 금미면 소재 휴·폐업 공장에 불법으로 운반해 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현장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와 지도·단속 권한이 익산시에 있어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복합문화 체험공간 확장

야외정원·건물 리모델링·다양한 기획전시·비대면 서비스 강화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미술인과 도민이 함께 하는 열린 미술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그동안 미술 담론을 형성함과 동시에 도민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국 서화 미술의 중심지였던 전북의 전통성에 바탕을 둔 서화, 서예 등 근현대 미술품 수집과, 전북 미술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작품의 수집, 다양한 기획전시, 문화예술교육과 국제교류 등 공공성과 대중성을 견지해 왔다.

2021년은 도립미술관이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 (2020년 9월~2021년 8월)을 통해 미술관의 건축과 옥의 공간이 도시와 지역의 상징적 브랜드를 세우나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술관 외부 조경 및 경관 조형 설치, 예술적 아우라가 있는 놀이시설과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실내·외 휴식 공간 등의 편의 시설이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미술관 전시장을 넘어 다양한 복합문화 체험이 가능한 외부 공간까지 확장된다.

올해 도립미술관 본관에서는 총 6회의 기획전시를 선보인다.

'한지워크(Hanji-Works)' 특별전(8.10~11.28)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

화자신인 한지의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살펴보는 특별기획전시이다.

다양한 미술 장르와 실천을 엮어, 미술매체로서 한지의 물성과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지의 정신성과 잠재성을 드러내도록 기획됐다.

지역 시각예술사 연구 및 정립을 위한 시리드 전시도 추진된다.

전주 출신 서양화가 천철봉의 탄생 101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천철봉展>(4.6.~7.25)은 철저한 사생(寫生)으로 자연 풍경을 연구했던

전북 고창 출신으로, 이중섭과 함께 한국 근대미술의 중요한 선구자로 조명되는 <진환展>(12.17.~2022. 2.27.)은 작가 작고 70주년을 맞아 한국근대미술사에서 그의 미술실천을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획전 또한 마련됐다.

사람의 몸을 자연 그 자체로 보고 개인의 몸을 중심으로 미적 실천을 탐색한 예술운동을 다룬 <신자연주의展>은 한국현대미술사 한 토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전북청년 2021>은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북청년미술가 3명(강유진, 문체

원, 쑤지)을 지원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데, 오는 4월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전북도립미술관은 2021년도 미술사, 미술이론, 인문학, 사진 강좌 등 일반인 및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연계체험, 공연 및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인 교육프로그램 중 '예술길잡이, 도슨트 양성교육' 강좌는 총 12회로 구성된 미술사와 미술이론, 스키치 교육을 진행하는 전시해설사 양성프로그램이다.

지난 해 15명의 수강생이 12주의 교육과정을 수료해 이 중 일곱 명이 미술관의 도슨트(전시해설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올해는 미션 참여형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인 'JMA Friends'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미술관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했다"면서 "전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등 도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1면에 이어... '지역 공공인프라 확충, 대도약 기틀 마련'

▲산단단지 조성 및 노후산단 재생, 낙후·도시지역 기반시설 확충

2개 단계(완주테크노, 완주농공)를 준공하고, 전주탄소국가산단과 김제특장차기계산업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하며, 2025년까지 160억원을 투자해 노후 농공단지 인프라를 정비한다.

정읍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확장 등 24개 사업에 344억원을 투자해 낙후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한다.

또한, 고창 내죽도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 등 7개 사업과 부안 여항구역 여업기반시설 구축 등 4개 사업 총 11개 사업에 140억원을 투자해 도시지역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확대 및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맞춤형 주거급여와 저소득 계층 임

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을 추진하고, 신혼부부·청년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임대주택 총 3,864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1,100동) 및 희망하우스 빈집재생(72동),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300동)을 추진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37개소에 1,181억원을 투자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17개소, 100억원) 추진과 함께 한옥건축시범사업과 건축자산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디자인 개선, 공원·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 간판개선사업 등

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불법취업 대비 및 기초 행정 구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 확정

시·군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입야도와 56개 지구에 대한 지적불법취업을 정비해 경계분쟁 예방 및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초 행정구역(통·반, 자연마을)의 명확한 경계를 확정해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회복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뉴딜사업 공모 대응, 재난·재난 리스크 경감 등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편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의를
- 스피치 컨설턴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